

## 200자 안내

### 미국여행 가이드북 (상·하)

최혁순 엮음

미국여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망라한 안내서 각주의 관광 명소 외에 미국의 지리, 역사, 경제, 정치, 문화, 풍속 등은 물론 슬기로운 여행방법을 곁들였다. 출발전 준비해두어야 할 내용으로부터 도착 후의 정보까지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도표와 사진 등을 동원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공관, 관광공사, 대한항공 등의 주소록도 게재했고 최신정보에 역점을 두었다.

을지출판사 / B4변형 / 각 342, 326면 / 각 7000원

### 13대 국회의원 중간평가

편집부 엮음

폭발적인 민주화의 요구를 안고 출발한 13대 국회의원 299명의 1년7개월간의 활약상을 엮은 책. 개원 벽두부터 광주민주화운동·5공비리·언론특위 청문회 등 새로운 의회윤리와 운영체계를 확립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들의 활약상을 되돌아보고 있다. 각각의 정치경력, 공약, 활동스타일, 활동상 등을 간략하게 점검했다.

내외신문사 / A5신 / 432면 / 4500원

### 십원짜리 여행

박광서 지음

‘주간매경’에 장편 역사소설「淸海의 별」을 연재하고 있는 작가의 신작 풍트집. 부의 편중의 가중화, 부패와 무질서, 부조리가 심각해지는 세대를 41편의 풍트로 풍자하고 있다. 주인공은 마음이 가난한 이들의 친구로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쬐먹는 각박한 현실로부터 따뜻한 정으로 그들을 감싸준다.

대학출판사 / A5신 / 334면 / 3800원

### 全學連, 그 이론과 행동

오오노 아키오 지음 / 정일환 옮김

1945년부터 시작돼 1970년을 고비로 고개를 숙이게 되는 일본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을 꼼꼼하게 추적한 책. ‘안보투쟁의 영광과 비참’

‘분열의 계절, 전학련의 붕괴’ ‘하네다 사건’ ‘자치회 집행부와 학생의 총의’ ‘운동권학생의 꿈과 현실’ 등 전9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권말에 ‘일본학생운동일지抄’를 덧붙였다.

미래문화사 / A5신 / 280면 / 3300원

### 밤이면요, 저는 이상하게도 슬프거든요

이소코 하타노 외 지음 / 고세훈 옮김

2차대전중 일본의 한 어린이와 그 엄마가 주고 받은 편지글 모음. 대화할 시간조차 없었던 전쟁의 와중에서 소시민들이 느끼는 감정과 생활이,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소년과 자애로운 엄마 사이에서 오갔던 편지에 리얼하게 그려져 있다. 모자간에 충만한 사랑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서로를 질책함도 볼 수 있다.

예하 / A5 / 230면 / 3000원

### 이한열, 유일하늘의 함성이여

이한열 추모사업회 엮음

’87년 6월항쟁에 죽음으로써 기록적 역할을 했던 연세대 이한열군 추모문집. 그가 썼던 일기와 시, 산문을 소개해 줬던 학창시절 어떤 고민을 했는지 볼 수 있다. 문병란, 양성우, 강은교 등 시인들의 추모시와 문익환, 오충일 등의 추모사 그리고 추모노래들도 실렸다. 또한 병실에서 장례식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한 글과 각종 자료도 담고 있다.

학민사 / A5신 / 412면 / 5000원

### 졸병수칙 3

김호운 외 지음

군대내무생활에서 졸병과 고참들 사이에 벌어지는 희비극을 13명의 작가가 쓴 27편의 풍트집. 군대에서의 ‘고문관’이란 아주 명칭스럽고 눈치가 빠르지 못해 고참들로부터 고문을 하게끔 만드는 자를 지칭하는 군대어. 졸병은 언제나 고문관일 수밖에 없는 이유와 고문관의 유래, 고문관이 벌이는 ‘고문’의 실상이 재미있게 펼쳐지고 있다.

글사랑 / A5신 / 268면 / 3200원

### 새로 엮은 菜根譚

洪自誠 지음 / 白濬基 엮음

처세의 지혜를 일어주는 중국의 고전「채근담」을 현대감각에 맞게 재해석한 책. 明代에 저술된 이「채근담」은 사회생활에 대한 마음가짐과 풍월을 벗삼은 즐거움을 주로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는 220개의 격언으로 추출, 표제 어구로 삼고 여기에 원문과 함께 한자풀이와 어의 및 해설을 곁들여 알기 쉽게 엮었다.

대영문화사 / A5신 / 288면 / 4000원

### 핑퐁 러브 스토리

정인갑, 임선영 지음

스포츠를 통해 체제와 국경을 뛰어넘어선 사랑에 성공한 안재형, 자오즈민의 이야기를 소설화한 책. 두 사람의 스포츠스타의 사랑 앞에 가로 놓였던 난관과 떨어져 있던 시간에 두사람이 겪었을 그리움이 생동감 있게 전해진다. 또 이 관계를 배후에서 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박철언장관의 역할, 정인갑의 역할과 증언이 드라마틱하게 엮여졌다.

민중출판사 / A5신 / 258면 / 3500원

### 조선문학사

이명선 지음

48년 발행했던 것을 현행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맞추어 개편했다.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고정욱의 「국어국문학 요강」, 김재철의 「조선연구사」와 함께 우리 문학연구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역저. 정통마르크시즘에 따라 문학과 사회사적인 연관관계를 해명하고 있다. 근대적인 문학연구방법론을 우리문학사에 도입한 실험적 연구서로 후학들에게 참고자료가 된다.

범우사 / B6변형 / 188면 / 1000원

### 산스크리트의 기초와 실천

스가누마 아키라 지음 / 이지수 옮김

인도철학과 불교를 학습하는 데 있어 필수어인 산스크리트 입문서. 산스크리트 문법을 혼자서 배울 수 있도록, 예문을 많이 들었고 사전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부록으로 불전을 해독에 주안점을 두어 설화나 서사시, 사상계통이 다른 불전에서 단문을 발췌하여 강독연습을 실었다.

민족사 / A5신 / 292면 / 5000원

### 붉은 대통령

마틴 그로스 지음 / 한영환 옮김

「다이어제스트」의 설립자이기도 한 작가의 정치소설.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젊고 카리스마적인 이상적 지도자가 당선되지만, 그의 배후에는 미국의 항복을 노리는 소련이 도사리고 있다. CIA와 KGB를 중심으로 정치스파이들이 펼치는 활동이 기발한 착상으로 재미를 더하고 있다.

남도 / A5신 / 336면 / 3500원

###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F.샤노 지음 / 박효종 옮김

개인이나 집단이 함께 기도할 때 기도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엮은 책.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신비, 구세사 등에 대해 묵상하

고 반성할 수 있는 기도문, 기도를 종결지을 수 있는 여러 구절을 제시한 부분 등이 실려 있다. 수록된 기도문들은 지켜야 할 엄격한 기도구조와 개인에 맡겨진 무형식의 기도구조간의 적절한 중용의 예를 보여준다.

성바오로서원 / A5변형 / 202면 / 3000원

### 사랑하는 이여! 타는 입술로 사랑한다 말하라

B.S 라즈니쉬 지음 / 백송애 엮음

성을 주제로 한 명상시집. 성에 대해 일반인들이 터부시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건전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성에 영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성은 사랑이 존재하기 위한, 삶이 지속되기 위한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삶의 에너지 작용을 한다고 피력한다. 성을 자연스러운 신의 축복이라는 라즈니쉬의 사상을 볼 수 있다.

나라인 / A5신 / 316면 / 3500원

### 발레의 역사

M.F. 크리스투 지음 / 조병욱 옮김

발레의 기원이 되는 프랑스 궁정무용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레의 흐름을 서술한 책. 발레의 변천과정을 주변 상황과 맞추어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름난 작곡가나 무용수들, 갖는 의의 등 서양발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했다. 1950년대까지 다루고 있어 오늘날 발레의 특징도 일람할 수 있다.

탐구당 / B6변형 / 222면 / 1800원

### 샤론여자고등학교

김병총 지음

’5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연과 열굴과」가 당선, 등단한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 작가의 교직체험을 바탕으로 여자고등학교에서 풋내기 남교사와 학생들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존경의 이야기이다. 연애사건, 피크닉, 인기투표 등 여학생들이 펼치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통해 발달하고 청순한 여학생들의 세계로 독자를 이끌고 있다.

삼진기획 / A5신 / 224면 / 3000원

### 재미있는 산수탐험 1

편집부 엮음

어린이들의 사고력과 창조력을 재미있는 놀이로써 키워주는 교재. 숫자들의 나열로 지루하다고 생각되기 쉬운 산수를 퀴즈, 게임, 퍼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서 배울 수 있게 엮여졌다. 또한 문제를 놓고 오래 생각하고, 연구하고, 실험해보으로써 사고하는 습관이 저절로 몸에 배게 했다.

팬더북 / A5신 / 214면 / 3000원

계간지

語文研究 (89년 겨울호)

[권두언] 오도된 전통의식의 質正(이기백) [훈민정음 반포 543주년 기념 지상좌담] 훈민정음의 재조명 ▲한글날을 맞아 '훈민정음과 한글'을 생각해본다(남광우) ▲훈민정음의 창제와 문화의 계승(남풍현) ▲훈민정음의 창제와 한자음 개선(서정범) ▲한국의 문자생활과 교육에 대하여(윤태림) ▲훈민정음의 운용(이기백) ▲훈민정음 훈습의 기본자료(이웅백) ▲세종어제훈민정음 서문에 대하여(최세화) [어문논문] ▲국어대우법상의 시점분석(최상진) ▲지명어 연구사 개관 1(최병륜) [본회 제74회 연구발표회 발표요지] ▲고려시대 궁중악가사의 형태에 대하여(정기호) ▲한국소설의 낙원의식 연구(김중희) [본회 제75회 연구발표회 발표요지] ▲한·일 비유표현의 비교연구(민성홍) ▲일제하의 실상소설의 고향의 의미(이정숙) ▲「홍부전」 인물의 전통성 고찰(김창진) [어문수상] 등소평과 덩샤오핑(유만근) 일조각 / A5신 / 528면 / 4000원

한국학연구 (89년 · 제2집)

▲김남천의 관찰문학론(김춘섭) ▲인형·인형놀이의 전승 연구(서연호) [공동연구] 한국인의 혈연의식 ▲훈민명칭에 나타난 혈연의식(배해수) ▲국문학에 나타난 혈연의식(설중환) ▲가족관계를 통해 본 한국인의 혈연의식(박혜인) ▲친족집단과 권력구조(정태환) ▲혈연중심적 집단주의(김응렬) [자료] 연기군 소재 금석문 자료 · 1(윤세영)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 A5신 / 222면 / 비매품

'89출판학연구

[논문] ▲한국출판학회 20년사(안춘근) ▲출판법의 성격과 그 문제(팽원순) ▲경상감영과 대구지방의 출판인쇄문화(윤병태) ▲출판학회 커리큘럼으로서의 교정론에 수반되는 어학강좌의 확충(황병국) ▲지방문화원의 출판에 관한 고찰(김양수) ▲The Development of Copying Machine and Protection of Publication(김영표) ▲사보기확안을 위한 소고(오경호) ▲교과서관과 교과서연구(이종국) ▲새로운 국제출판관련 저작권의 동향과 대응(박원경) ▲조선조 관선도서 유통양태고(백운관) ▲한국 출판문화와 언어, 학문, 교육(안춘근)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국제저작권의 재평가(한승헌) ▲한국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정책과 출판개발(민병덕) 외 범우사 / A5신 / 370면 / 6000원

월간지

다리 (90년 2월)

[기획대담] 도덕성과 윤리성의 창조시대(김관석, 김진현) [초점분석] 북한의 '독야청청' 계속될 것인가(김남식) [쟁점분석] 한국경제 과연 위기인가(강철규) [집중탐색] 노사갈등의 성격과 해결모색(조우현) [경제추적] 금융가 인사에도 TK맹풍(최남수) [흐름과 밝힘] ▲팽창 예산안의 성격과 문제점(임휘철) ▲올해 남북관계의 전망(정해구) ▲5공청산 대타협과 언론의 거리(유일상) ▲소비자운동 새 흐름 '소협' 출범(안정미) [문화마당] ▲최초 장편노동소설 「파업」(이재현) ▲현장과 전시장, 그 거리재기의 갈등(유홍준) ▲뿌리 없는 두편의 사랑영화(김경형) ▲춤의 수도권 편재모순 시정해야(김채현) 외 월간다리 / A5신 / 400면 / 4000원

학술지

아시아문화 (제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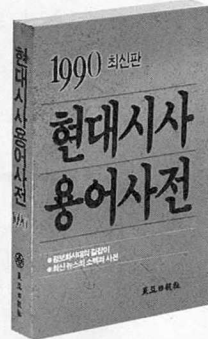
[논문] ▲일본 正倉院 소장 新羅帳籍의 생성년도와 그 역사적 배경(김중준) ▲潘頤桴론(오춘택) ▲남한 단정수립의 현실주의적 분석(김영명) [제4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 ▲가족제도연구의 몇가지 문제점(이만갑) ▲한국의 가족제도, 그 어제와 오늘(송준호) ▲중국의 가족제도와 부녀의 입장(김임자) ▲전통 일본가족의 구조적 특징(이광규) ▲베트남 전통가족제도와 부부관계(유인선) [연구동향] 학술강연회 · 집담회 요지 [자료] 이슬람인이 본 1909년의 한국 - Abdul Rashid Ibrahim의 「이슬람세계」 한국편(이희수)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 B4 / 264면



화제의 책

현대시사용어사전

동아일보사 엮음



하루가 다르게 사회구조가 고도화되고 모든 분야가 제각기 전문화됨에 따라 생소한 낱말과 新造語가 매일같이 대중매체를 통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색출판

韓國紋樣의 展開 <도자편>

오근재 지음



도자기는 역사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장 밀착된 인간 삶의 매개물 역할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도자기의 형태는 인간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색채와 형태, 그리고

현상은 첨단과학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만들어낸 전문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시사용어사전이 간행되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우리나라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이 책은 새로운 단어, 알기 어려운 낱말 4천여개를 알기 쉽게 풀이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문화·과학·기술에 관한 새로운 상식, 학술 용어, 유행어, 외래어 등에 초점을 맞춰 항목을 선별했다.

용어해설에 있어서는 먼저 용어의 기초적인 의미를 밝힌 다음, 그 용어의 현대사회에서의 쓰임새를 예시하고 있다.

89년판을 전면 수정, 보완한 이번 책에는 약 150개 항목이 추가되었다.

동아일보사 / A5신 / 520면 / 5500원

그 표면에 처리된 문양에는 인간의 의식이 담겨 있다는 것이 미술사학자들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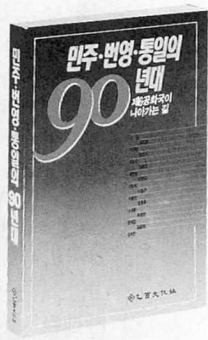
이 책은 빗살무늬 토기로 시작된 우리나라 도자기의 문양을 '찍어 그려내기' 기법으로 재생시켜 시대별 문양의 변천과정과 특색을 살피고 있다. 도자기 문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극심한 시각적 왜곡현상이 나타나 마치 지구본에 표현된 지형의 지표처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정형과 비정형이 교차되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우리 도자기 문양에 대해서는 "문양 속에 어떤 의식이 들어 있으면서도 그 의식이나 관념이 장식적 요소를 침해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진사 / A4 / 204면 / 9000원

화제의 책

민주·번영·통일의 90년대

趙淳 외 지음



현직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제6공화국의 정책적 과제와 전망을 밝히고 있는 책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6·29 이후 우리사회 민주화의 폭과 깊이

가 더해온 것으로 평가하는 필자들은 이 책에서 지나는 길을 반성하고 나아갈 길을 점검하고 있는데 '학자군단'이라고 표현되는 6공화국의 브레인들은 우리사회가 '민주·번영·통일'의 길목에 한발짝 다가설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간 각종 언론매체의 논평과 가십성 정보 등을 통해 이루어진 6공화국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갖는 단편성을 극복하고자 한 이 책은, 지난 해 8월말에서 9월초에 걸친 필자들의 강연내용을 주축으로 편집되었다.

정부의 민주화정책, 복지정책, 통일정책의 근거와 방향을 국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 책은 노재봉 대통령 정치담당 특별보좌관의 「한국민주화의 과제와 전망」 등 모두 17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을유문화사 / A5신 / 398면 / 4000원